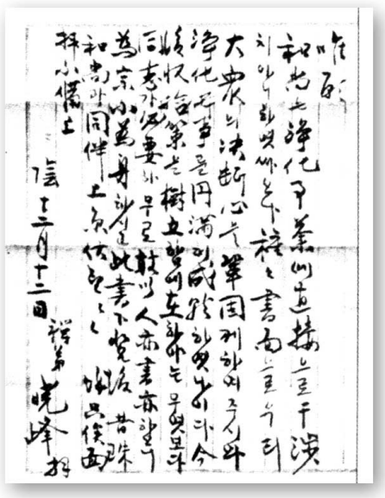


효봉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 원본.

선사들의 내밀한 고백 '편지'

"인간의 한 잎이 팔공산에 떨어지니 빛깔에 안팎 있어 바로 가을잎이라. 그 가운데 무슨 비밀이 있는 듯하나 떨어진 꽃 한송이 가지로 다시 올라가네."(효봉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본래 팔공산은 안팎이 없거늘 누가 봄가을로 한 잎인 줄 알겠는가. 비밀을 안 것은 비밀이 아니니 더럽고 냄새나는 것도 이상할 게 없음이 바로 인간이라는 꽃잎일세."(경봉 스님이 효봉 스님에게)

편지는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간의 내밀한 소통이다. 산사의 스님들이 주고받은 편지에도 서로의 깨달은 바를 점검하는 촌철살인의 선문답과 수행자로서 느끼는 고뇌와 갈등 같은 인간적인 면모가 두루 소개돼 있다.

<산사에서 부친 편지>는 경봉 경허 만해 성철 효봉 청담 스님 등 근 · 현대의 고승 50여명이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책이다. 통도사 극락선원장 명정 스님이 스승 경봉 스님에게 물려받은 쌀가마니 두개 분량의 편지들 중 해독 가능한 130여 편을 골라 우리말로 옮겼다.

스님들은 편지를 통해 흩어진 잡념을 모두 지우고 정진하라고 서릿발 같은 경책을 내리기도 하고 "바람벽을 하고 서서 물끄러미 석양을 보노라니 불쑥 스님 얼굴이 떠오르지 않겠소. 그래서 발우에 지는 해를 담아 훌훌 마셔버렸소."라며 따뜻한 정을 전하기도 한다.

치열한 구도과정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겪는 세속적인 번뇌와 갈등, 혈연에 대한 애틋한 정도 담겨 있다.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잠시 산을 내려가야 하는 제자 벽안 스님에게 경봉 스님은 "부디 이번 길을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병간호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대를 나무라지는 않을 걸세"라는 답신을 보냈다.

편지를 주고받은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지 않고 한문 원본을 싣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편지 한 장 한 장마다 수행자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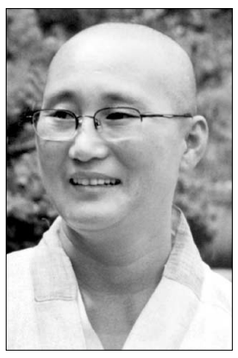
"돌아보면 저에게 남은 것은 방 안에 걸어둔 붓 한 자루와 낡은 서책 몇 권, 그리고 내 몸을 근질근질하게 하는 쥐벼룩 몇 마리가 전부일 뿐, 한평생 살아온 삶의 무게가 오직 그것뿐입니다."(한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여수령 기자

산사에서 부친 편지
명정 스님 옮김 | 정성욱 엮음
노마드북스 | 1만3천5백원

죽음과 만날때 풍성해지는 인생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 시설서 만난 1000여명 환자와 맺은 인연 풀어내



1997년 무더운 여름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짐을 보면 스님 같은데 가족은 없고 임종이 임박한 사람이 있으니 한 번 와보라"는 천주교 호스피스 병동 수녀님의 전화였다.

부랴부랴 병원을 찾은 능행 스님(사진)을 맞은 이는 손발톱이 살을 파고들고 살점이 뚝뚝 떨어진 모습으로 누워 있는 폐암 말기의 비구 스님이었다. 선방에서 정진하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스님은 쌈지돈을 모아 입원시켜 준 도반들이 결제에 들고 나자 급속히 병이 깊어져 병원을 떠돌게 된 것이다.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종교가 불교인데, 이렇게 큰 십자가 아래 누워 죽게 됐다"며 "스님들이 편히 죽을 수 있는 병원 하나 지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후 충북 청원군에는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이 들어섰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절망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말기환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10여 년간 불자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온 능행 스님이 기존의 호스피스 운동에 불교의 아미타신앙을 결부한 '아미타 호스피스운동'을 펼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능행 스님은 큰절에서 살다 병이 깊어지자 버림받은 스님을 비롯해 임종 직전에야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다면 불사 같은 것 안하고 공부했을 텐데"라며 눈물짓던 스님, '카타야수 동백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전신마비와 기억상실이 찾아왔지만 끝까지 목탁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스님 등 1000여 명의 다양한 환자를 만났다.

최근 발간된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에는 능행 스님이 이들과 맺은 소중한 추억이 스님의 눈물인 듯, 웃음인 듯 새겨져 있다.

어렵게 부지를 구해 정토마을의 터전을 잡았던 때부터 '죽을 일' 밖에 없는 환자들이 몰려드는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한 일, 법당에 시신을 쌓아둔다는 소문이 나 주민들 몇몇이 신발을 신은 채 법당을 뒤진 일, 경찰서와 검찰청을 수 없이 드나들어야 했던 일 등을 담담하게 정리했다.

또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종했다가 다시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자녀들에 실망한 어머니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하고 있는 '죽음'의 적나라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능행 스님 지음 | 도솔 | 9천5백원

죽음을 코앞에 두고야 삶의 소중함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현대인들에게 스님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삶이나 30년 혹은 50년이 남은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잘 죽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막상 죽음 앞에 서면 그저 죽음을 피해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잘 죽는 법을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해결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책은 절절히 보여주고 있다. (043)298-2258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기초부터 착착 … 경전 강의 시리즈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무비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 각 6천, 7천, 8천원

불교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예불문과 <반야심경> 등에는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을까?

수많은 불자들이 경전을 줄줄 외우고 법회 때 마다 독송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참뜻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초심자들에 대한 신도교육 부족이나 불교계에 만연한 '책 안 읽는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읽기 쉬운 한글 번역서의 부재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조계종출판사는 불자들이 자주 접하지만 체계적인 공부가 부족했던 경전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경전강의' 시리즈를 기획하고, 그 첫 번째 순서로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한 무비 스님(범어사 강원 강주)의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을 펴냈다. 1992년 첫선을 보였던 책의 개정판으로, 한글세대 불자들을 위해 좀 더 말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우리시대의 대강백인 무비 스님의 자상한 안내로 어렵지 않게 불경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

불교의 ABC라 할 수 있는 예불문을 풀이한 1권에서는 예불문의 원문과 뜻풀이, 무비 스님의 해설을 만날 수 있다. 그동안 입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어떤 뜻이었는지 몰랐던 예불문의 참뜻을 알아가는 재미가 느껴진다.

2권 <반야심경>과 3권 <천수경>에서는 전체 불경 중에서 각 경이 갖는 위치와 중요성, 뜻풀이와 해설을 통한 경전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다.

삽살개가 된 사자이야기

사자개 삽사리
이가을 지음 | 곽영권 그림
사계절 | 9천5백원

먼 옛날, 인도 북부의 초원에 살던 한 수사자는 자신의 이빨에 물려 죽어가는 어린 사슴의 슬픈 눈망울을 본 후 살생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진다.

사냥을 그만두고 식음을 전폐하던 수사자는 신라에서 온 스님에게 주먹밥 한 덩이를 받아먹은 후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서려 한다. 하지만 "같이 가려면 개가 되어야 한다"는 스님의 말에 또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된다. "사자인 내가 개가 되어야 한다고?" 며칠을 고민하던 사자는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님과 함께 신라로 오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나운 사자의 형상이 차츰 충직한 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바로 '사자개'라고도 불리는 '삽사리'가 그것이다.

<사자개 삽사리>는 천연기념물 368호 삽사리(삽살개)에 얽힌 내력에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버무려 담은 책이다.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능과 생명에 대한 연민에서 오는 갈등을 통해 '개가 될지언정 뜻한 바를 이루겠다'는 깨달음을 이뤄내는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곽영권 교수(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학과)의 따뜻하고 차분한 그림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에 더 집착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다.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자수 대진 합장

간(肝) B형간염, 알콜성 간염 간염보균자, 지방간 환자들의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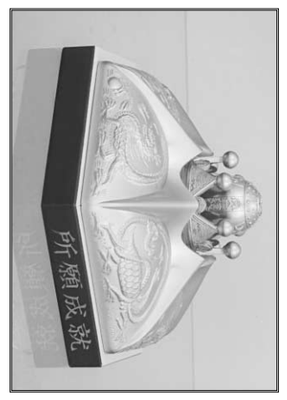
윤량원장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해발 1,700m의 고지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개발한 키모탕을 B형간염, 알콜성간염, 간염보균자, 지방간 환자들에게 임상실험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만족할만한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 간염, 지방간 환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사 윤 량

윤원장은 계속 연구하여 더 좋은 제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키모탕을 복용후 효과를 보신 환자들이 구전으로 소개하여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 키모탕(湯)

문의전화 02-598-9832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틀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